

16작물 정보 공개 ‘유전체 정보 접근성 확대’

농진청, 민간의 유전변이 정보 확보 어려움 해소

농촌진흥청은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분석한 벼, 참외(멜론), 유채, 포도, 토마토, 배추, 참깨, 수박, 상추, 동양배, 오이, 무, 사과, 오렌지, 귤, 딸기의 유전변이 정보를 일괄에 공개, 국내 디지털 육종 연구를 지원한다. 유전변이 정보는 전체 유전체 정보로부터 핵심 정보만을 뽑아 정리한 것으로 전체 정보보다 크기가 작고 정제돼 있어 분자표지 개발과 디지털 육종에 활용된다.

하지만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 컴퓨팅자원이 필요해 민간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산업진흥센터로부터 요청받은 16작물 1만 382자원의 유전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해 얻은 유전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외에 공개된 유전체 서열 정보를 3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이용해 단 4주 만에 분석을 마쳤다. 일반 서버로는 5년 이상 걸릴 분석 기간을 단축해 국가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변이 정보는 슈퍼컴퓨팅센터(nabiscrda.go.kr)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사용한 전체 유전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민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유전변이 정보를 단시간에 분석, 공

개해 종자 기업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했다”며, “이번 정보 공개로 연구자들은 유전체 분석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확보한 양질의 유전형 정보를 농생명 기초 연구와 디지털 육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 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에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 공동 활용과 초고속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에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28일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해 온 모범 상공인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일자리창출·지역사회공헌’

전주상의, 지역경제발전 모범 상공인 표창

전주상공회의소는 28일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해 온 모범 상공인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두산지게차전북판매(주) 안준엽 대표이사, (유)고양산업 김영천 대표이사, 아테카코리아(주) 채만남 이사, 케이씨씨전주공장 김대원 수석, 대륜산업(주) 이남현 본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전주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등 1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뛰어난 리더십과 책임감,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태 회장은 “지금까지 회사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북경제가 한단계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으로 국가경제발전이바지한 모범상공인 2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2025년 전북축협 경제사업 추진전략 회의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4일 전주김제완주축협 회의실에서 관내 축협 지도·경제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인의 가치 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와 경영비 절감, 지속가능 경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전북축협 경제사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뿌리농가 육성성과 컨설팅·교육 강화로 축산업 성장 주도, 스마트 가축시장 및 조사료 유통확대로 농가 실익 지원, 가축질병 차단 방역 및 전북한우경진대회로 농가 생산성 증대, 친환경·청정축산 및 나눔축산으로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 등 2025년 전북농협 축산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축협별 경제사업 주요 추진내용 공유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지나해 축산업은 생산비 증가, 가축질병, 소비문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며, 올해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전북축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다인바이오, 캐나다 천연건강식품 ‘NF’ - ‘NHP’ 허가 획득

바이오진흥원, 캐나다 NF·NHP등록·미국 NDI·GRAS인증 등 글로벌 진출 위한 기반 마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우수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진흥원 입주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입주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지원과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생산지원 및 상품화 기술지원, 첨단바이오식품센터의 R&D지원 및 글로벌화 지원으로 전주기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입주기업인 다인바이오(주)는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인바이오(주)(이제현 대표)는 2019년 1월 바이오진흥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에 입주한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식품용 원료 ‘Dyne-NAO’(네오아가로 올리고당)를 캐나다 보건부의 천연건강식품(NHP)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NHP 등록 제도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캐나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가 NHP 등록을 통해 품목번호(NPN)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인바이오(주)가 개발한 식품원료 Dyne-NAO는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신규식품원료(Novel Food)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NHP 등록을 통해, 변비 개선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입주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생산

장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아고 있으며, 다인바이오(주)는 진흥원의 발효조 및 후가공 설비를 활용해 효소 ‘베타아가라아제’와 기능성 원료 ‘Healthy NAO(헬시나오)’ 등을 개발하였다. 다인바이오(주) 이제현 대표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새로운 헬스케어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진흥원에 입주했다”며 “전문 인력의 멘토링과 다양한 사업화 지원, 바이오 진흥원의 네트워크 덕분에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사업 성공을 위한 보육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김제 광활 햇감자 홍보 판매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수도권 대형유통센터 및 전주유통센터)에서 김제광활 하우스 햇감자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제 광활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되어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바다에서 맛따르는 해풍이 천혜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육질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밤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맛이 좋고 영양도 많아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크게 효능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김제지역의 감자



수도권 대형유통센터 및 전주유통센터)에서 김제광활 하우스 햇감자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는 지난해 38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김제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도 품목”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통합판촉행사를 연중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지역발전위, ‘환경 정화 봉사활동’ 전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역발전위원회, 산업진흥위원회, 기업행복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안준엽)는 지난 25일 전주산업단지 일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천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전주산업단지 내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전주상의 의원단 회원 기업 임직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 재활용 분리, 도로변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이번 활동은 전주상공회의소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실천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이라는 ESG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안준엽 위원장은 “전주의 산업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깨끗한 환경과 지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환경 정화 봉사활동은 기업이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